

집행부 발목 잡는 광양시의회

국제 원부자재 수급센터 등 역점사업 번번이 제동

광양시의회가 일부 시책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발목을 잡아 광양시의 원활한 행정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소속 3선 시장인 이성용 시장이 '광양발전 100년 대계(大計)'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번번이 시의회의 제동에 발목잡혀 늦춰지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9년부터 광양시가 광양항 활성화와 다양한 물동량 창출, 서측 배후단지 활용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국제 원부자재 수급센터' 설치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30억(광역시·군별균형개발 특별회계사업비 15억·시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실히 준비해 왔으나 시의회가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며 견제하고 나서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광양만권 u-IT 연구소의 유치과정과 5년간 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비위사실 여부를 검증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원 6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3

개월간 활동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특위는 광양시가 지역 IT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의회 동의없이 지원확인증 제출 ▲초기 사업계획서 과대포장 ▲광양만권 u-IT 연구소 법인등기 부적절 ▲지역 IT 특화연구소 설립·운영지원 협약체결 소홀 ▲u-IT 연구소 인력운영 부적절 ▲보조금 지급, 정산·집행 소홀 등을 특위 결과물로 내놨다.

이처럼 시의회의 긴 조사기간과 방대한 자료요청은 물론 시 관계자들과 연구소 소장 및 해당 직원을 불러 2차례에 걸쳐 의욕적으로 청문회까지 열며 도덕적 책임 유무를 파헤쳤다. 하지만 큰 소득 없이 흡입 내기만 거듭한 뒤 지난 25일 사실상 부족한 증빙자료 요구 후 용두사미 격으로 특위를 끝내 스스로 한계를 입증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지난 2006년 광양시와 순천대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아 시비 35억원을 5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당시 시의회가 승인해 연구소가 탄생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부

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문제는 시의회가 새로운 사업마다 일부 시의원들의 편향된 시각과 정파에 따라 동료 의원이란 명분 때문에 소신을 접은 채 거수기 역할을 한 데 있다.

더욱이 '지나친 견제가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시청내에서 터져나와 향후 대 시의회 관계정립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한 간부 공무원은 "향후 신규 사업과 단체장 역점사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하기 꺼려해 '복지부동'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나친 간섭은 시장의 정치력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면서 "시민에 의해 선택된 지역 정치인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의 길이 우선임을 시급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남 동부권

서민 애환 함께 달린 81년 전라선 단선시대 추억속으로...

복선전철화 이달 완료

지난 1930년 개통된 81년 역사의 전라선 단선시대가 복선 전철화 진행에 따라 추억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8일 코레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익산에서 순천을 거쳐 여수에 이르는 전라선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이 지난 2001년에 시작,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여수~덕양간 단선구간 16.6km가 오는 3월이면 폐선 처리되면서 전 구간에 대한 복선화가 완료된다.

전라선은 일제 강점기 가슴 아픈 수탈의 통로역할을 했지만,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역동적 시기에 교통의 중추역할을 하는 등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라선에 스민 역사를 되돌아보고,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등 여수~덕양간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없다"며 가족단위 가져 여행의 통로역할을 했다.



다.

협약 내용은 시가 코레일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코레일 측은 여수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철도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앞장서게 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여수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시, 5개년 계획 수립...U-City 사업 추진

여수시가 2015년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로 변모한다.

여수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행정구역 전역(502.42km)을 대상으로 U-City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의 'U-시범도시'로 선정돼 U-Bike 공영 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단위별로 U-시티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 정보화와 도시발전 계획도 별도로 추진해 왔다.

시는 올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U-시티 사업을 종합하고 여수시의 정보화 계획, 도시발전 계획 등을 모두 반영해 체계적으로 U-시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말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6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U-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 ▲U-시티 종합계획 ▲정보화 기본계획 등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U-시티 건설에 대한 기본 방향, 구체적인 추진전략,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앞으로 구축될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관제센터 등을 모두 통합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방안도 마련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2년간 20개 사업 590억 유치

보성군 공모사업 성적 '우수'

보성군이 지난 2년간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중앙부처와 전남도에서 실시한 주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성군은 지난 2년 동안 20개 사업, 59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주요 사업으로 지난해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주민지원사업(10억원)과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씨감자 생산기반 구축(4억원) ▲해양경관 광역조망권 조성사업(8억원) 등을 보성군이 가져왔다.

특히 ▲보성을 종합정비사업(100억원) ▲옹반 숲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15억원) ▲별고 칠동천 '고향의 강' 사업(200억원) ▲행복마을 4곳(20억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7억원) 등 총 10여개 사업에 400여억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2009년에도 ▲보성을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85억원) ▲조성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70억원) ▲우리사랑 우리마당 상설국악공연(1억 5천만원)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90여억원을 확보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모사업 유치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공모사업 유치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진기자 sun@



곡성군 5~6일 고로쇠·딸기 판촉행사

곡성군은 5~6일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고로쇠와 딸기 판촉행사를 연다. 고로쇠는 ▲1.5ℓ 5000원 ▲4.5ℓ 1만 3000원 ▲18ℓ 5만원에 판매된다.

또 딸기는 관광객이 쉽게 사갈 수 있도록 소포장하며 박스 주문시에는 차량까지 배달한다. 이와 별도로 꿀과 건나물 등 25종의 농·특산품 전시 판매와 경매방식의 한정판매, 토끼 10마리 분양, 심정쌀 증정 등 깜짝 이벤트도 준비해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전 북

“용담댐 인근 폐기물 처리장 안돼”

임실·진안군민들 “비산먼지 건강 피해” 반발

용담댐 인근 임실과 진안군민들이 진안과 임실군 경계지역에 지정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진안·임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에 따르면 A업체가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일대 4만8000여㎡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 14일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

대책위는 “사업 예정지역은 미개발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폐기물차량의 사고 시 도시의 식수원

인 용담·옥정호를 위협하고 독극물과 병원균이 함유된 폐기물 운반차량이 진안·임실지역을 통과하면서 비산먼지 등을 날려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청정이미지가 훼손돼 농업수입이 감소하고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돼 식수와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생존권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서운중기자 seo@

부안수협이사 회센터 특혜 의혹

임대료 인근 대비 26.2%로 13년 독점...수협 연 8461만원 손실

부안수협 임원이 13년째 격포항 회센터 건물을 저가에 독점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8일 부안수협 조합원에 따르면 K모 이사는 격포항 수협소유 2·3층 회센터 1183㎡(358평)를 임대보증금 4억3000만원에 13년간 임대해 영업중이다.

하지만 K모 이사가 수협에 맡긴 ㎡당 임대보증금은 36만3482원으로, 격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인접 상가의 ㎡당 임대보증금(138만5281원) 대비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수협이 조합원에게 받는 대출이율(연 7%)

로 계산하면 연간 8461만원의 임대료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부안수협 관계자는 “수협건물 임대사업자는 8명중 7명이 13년간 영업을 하고 있고 특징인에 대한 특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대료 또한 수협이사에서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원칙에 의해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인근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센터의 경우 1층을 35평 조합원에게 9.9㎡(3평)에 연 임대료 300만원에 임대해 ㎡당 임대료가 432만 9000원에 이른다. 2층과 3층 역시 두 사람에게 각각 495㎡(150평)를 보증

금 3억원에 연임대료 2700만원씩 받고 있어 ㎡당 임대료가 138만5281원으로 분석됐다.

부안수협 조합원 A씨는 “수협법에 의하면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수협이 이런 몰상식한 행동에 저가 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생계도 막막하고 어획량 감소와 유가폭등으로 조합을 해도 손해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장사의 기회마저도 없어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분노를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전북TP 기술사업 메카 부상

〈테크노파크〉 지티티비 등 5개 업체와 연달아 업무협약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송형수)가 중소기업에 잇따라 기술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기술사업화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최근 호남 유일의 국가기술거래기관인 (주)지티티비(대표 기술거래사 박용선)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거래·기술금융 및 국내외 기술거래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사업화 전반에 걸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사업화는 우수한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금융 연계,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전북TP와 (주)지티티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두 5건의 기술거래를 성사시켰고 국제 기술거래도 추진

하게 됐다.

실제로 LED 조명 생산업체인 (주)대광라이텍(대표 유성용)은 전북TP와 지티티비의 지원을 받아 조만간 외국기업으로부터 LED관련 우수기술을 도입해 올해 100여억원의 매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전북TP는 또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이전기술사업단'에 10여억원을 지원하고 전북 5개 대학과 함께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에 11억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준수 전북TP 기획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국내외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기술을 지역내 중소기업에 이전해 작지만 강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도권 입맛 출린 ‘순창 고추장’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지점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직접 순창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순창 장류식품사업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체험행사는 고추장을 이용해 불고기 피자 만들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순창군 제공〉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지점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직접 순창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순창 장류식품사업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체험행사는 고추장을 이용해 불고기 피자 만들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순창군 제공〉

단신

군산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선정

군산시의 전북인력개발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조선·기계분야 융합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미취업

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으로 연간 30명의 특수유형 기술인력을 양성해 최근 가중된 조선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승익기자 nogusu@

김제 광활감자 '지평선' 브랜드 단다

김제 광활면에서 생산되는 햇감자가 김제시의 대표 공동 브랜드인 '지평선'을 달고 판매된다.

김제시는 광활농협에서 제출한 '지평선감자' 상표 사용 신청권을 승인했다. 광활 햇감자는

쌀, 파프리카, 포도, 배, 한우에 이어 6번째 '지평선' 농산물이 됐다. 광활면 12개 작목반은 8000여t의 햇감자를 4~5월에 생산해 170여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정읍시 '재정운영 자가지단' 공청회 실시

정읍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재정운영 자가지단' 공청회를 가졌다.

정읍시와 유사한 7개 지자체를 비교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건단 결과 총 재정규모면에서 정읍시는 6342억원으로 7개 비교 지자체

중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지만 지방채무는 308억원으로 6번째, 지방채무는 749억원으로 분석됐다.

김삼기 시장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 예산운용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지역특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남원시는 올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에 '해피실버 문화예술단사업'으로 8000만원

의 국비지원을 받는데 이어 올해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으로 응모해 86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남원시는 예년 지역아동센터 등을 서비스 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북취재본부=박성태기자 bs8787@